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288-9700  
전북매일: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음 2월 12일) 제22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특례시 지정, 전주가 최우선”

### 민주 전북도당,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과 소속 도·시의원,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 의회장협의회 등은 지난 15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에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 전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다”며, “전북도당은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과 전략산업,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229억 원에 불과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무려 3조8000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따라서, 현재 구조로 계속 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전주와 전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제한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해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동할 것을 다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우리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 기관들과 전주시는 도민들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향후 적극적인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심의 후 내달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이 때까지 최선을 다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행정수요,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으로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 지정기준을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기로 함으로써 전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황이다.

/송효철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과 송성환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및 전북도, 전주시 의원들이 지난 15일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문화재 수리현장 구경하세요’

전주시, 12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기와 하중 견디지 못해 기둥 등이 뒤틀린  
풍패지관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현장 공개



출입이 통제했던 전주풍패지관(보물 제583호)의 서익헌 전면 해체보수 공사현장이 전주시민과 여행객들에게 공개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에 한해 공사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해체보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 전주풍패지관의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현장을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공개하는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현장 주변에 대형 가설 덧집을 설치해 보수 현장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관람기간은 12월 27일까지며 관람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관람은 전화로 사전예약(전통문화유산과063-281-5361, 5130, 5127)한 선착순 40명에 한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

참하면 된다.

서익헌 해체보수 작업은 지난 2015년 안전진단 결과 기둥과 처마가 기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거나 금이 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서익헌의 뒤틀림 등 현상은 풍패지관이 보물로 지정된 이듬해인 지난 1976년 이뤄진 보수공사 당시 기와를 전면 교체하면서 조선시대 전통방식이 아닌 일반 기와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존보다 더 무거운 기와를 얹다보니 기둥과 처마가 이를 이기지 못하면서 뒤틀림 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송효철 기자

## 社 告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지역주재기자	익산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9년 3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 녹색아파트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유도한다

### 전북도, 올해 10개소 선정 22일까지 신청접수 선정시 참여세대별 온실가스 무료 진단 등 지원

전북도 및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9년 녹색아파트 사업을 통하여 생활속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시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녹색아파트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선정하여 세대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한 생활속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환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57개소 약 8만5000세대와 협약을 통해 녹색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선정·추진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2일까지 e-mail(jbsd@hanmail.net) 송부하면 된다.

녹색아파트로 선정되면 4월중 도 및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업무협약식을 통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며, 참여세대별 온실가스 무료 진단·컨설팅(생활속 유해환경요소 측정서비스 포함), 멀티탭 무료 증정 및 선착순으로 일부 가정세대 보일러 배관청소를 지원한다.

그 외,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입주민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자건거 무상수리, 아나바다 장터, 얼음팩 무상 수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연말에 녹색아파트사업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아파트, 우수 관리소장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미세먼지가 추가 저감대책 추진

3면 -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